



바야흐로 추상명사까지 외래어 범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오영택

해방 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국어순화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어의 잔재를 없앤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자의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이 퇴화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지구촌화”니 “국제화”니 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 말이 설자리를 잃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아 안스럽기까지 하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겸 찻집을 찾으려고 했다. 이 근처 다방이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촘스럽게 “다방”이란 말을 쓴다고 편잔을 주는 것이다.

알고 보니 “커피숍”이니 “까페”란 간판은 있어도 다방이란 간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신규 아파트 이름도 영어, 불어, 이태리어까지 동원되어 ‘레스빌’, ‘뉴캐슬’, ‘빌라’, ‘팔레스’ 등등을 사용하는 현실임에야.

또 한번은 전 모 경제부처장관의 라디오 대답을 들으니 외래어 사용이 너무 심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사람이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정도였다.

우리는 물질명사(컴퓨터, 핸드폰)는 물론 고유명사(아파트 이름)까지 외래어에 의존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추상명사도 외래어를 사용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증증환자가 되어버렸다. 우리말이 된 외래어를 살펴보자.

‘캠페인, 캐치프라이즈, 리스크, 랠리, 벤처기업, 벤치마킹, 시너지효과, 마인드, 인프라, 아웃소싱, 등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러 부족언어로 나누어져 있고 언어가 발달하지 못해서 식민지 통치국가의 언어를 아직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말 중에 위에 예로 든 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식 표현이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데서 다듬어지고 닦아져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우리말로 표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경제특구니 제주관광지역이니 해서 외국인을 유치해야 하는 현실에 이들 지역에서 영어를 전용으로 사

용하자고 하는 마당에 쓸데없는 공염불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사용해야 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세련된 것으로 보이는 현실을 짚어보고 싶음은 나만의 착각은 아닐런지.

나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외래어가 깊숙히 우리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국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중국은 심할 정도로 외래어를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조어(造語)의 명수다.

중국사람들은 '서울'을 '한성(漢城)'으로 부르고 있고, 나의 성(姓)을 '오(吳)'라고 소개하면 중국식 발음대로 '우'라고 부르고 '오'라고 재차 강조해도 다시 만나서 부를 때는 중국식 발음대로 부른다.

한자어가 아닌 서양사람들의 이름도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한나라당'을 '일국당(一國黨)'이라 부른다.

심지어는 'W. Bush 대통령'을 '샤오부시(小布殊)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 중국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든다. '비아그라'를 '衛哥(지켜주는 형님)', '핸디폰'을 '手機'로 부른다.

고유명사나 물질명사를 자기나라말로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하물며 추상명사를 외래어로 쓰는 경우는 드물다.

신규 외래어를 중국어로 만드는 특별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언론매체에서 쓰기 시작하면 따라간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이 신규 외래어에 있어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 먼저 조어를 하면 중국에서도 같이 쓴다는 사실이다. 통일된 신규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

우리현실은 국어순화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언론매체가 외래어 사용을 앞장서서 사용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21세기는 지구촌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세계의 움직임이 실시간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라고 하면서 외래어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외래어를 대신할 우리말이 있는데도 고유명사와 추상명사까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을 국제화 시대의 대세라고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나도 무심코 외래어를 사용하는 중증환자 중의 한 사람일 수 밖에 없음을 시대의 흐름 때문일까?

